불자 세상보기

시간과 함께 춤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병신년 마지막 달.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회한과 분노, 그리고 희망의 뒤엉킴 속에서 큰 어지러움을 느낀다. 새해로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휘청거린다. 제행무상이라고 하니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새삼 "시간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 묻는 자가 없을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묻는 자가 있어 대답하려니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 등이 시간의 정체를 알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불교 경전에서도 시간의 문제는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궁극적으로 시간 자체도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현대 과학에서 시간은 대폭발(Big Bang)에 의해 공간과 함께 생겨났고, 언젠가는 다시 대폭발로 파괴되어 블랙홀에 빠져 사라진다고 본다. 이렇게 시간도 생성 소멸하는 존재인데, 이 시간 속에 찰나를 사는 인간이 영원을 희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괴이한 존재다. 시간과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 바로 연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간 삶의 터전은 자연과 역사에 있다. 이러한 두 터전에서 전개되는 인간 삶의 방식에 따라 시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 인간은 태양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태양의 운행에 따라 시간 단위를 만들고 이에 따라 삶의 양식과 역사를 만든다. 또 여기에 종교도 등장한다. 자연과 역사의 조건, 그리고 종교에 따라 인간은 다양하게 시간을 표상시킨다. 농경문화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으로 보지만 사막문화에서는 직선으로 보고, 기독교는 시간을 유일신이 만든 것으로 보기도 하는 등.

시간에 대해 깊이 사유할수록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을 함께 하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것 등 인간 삶의 여러 모습은 모두가 시간의 레일 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시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18세기에 기계로 만든 시계가 확대되면서 인간 삶의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계 시계의 침에 이끌려 시간의 덫에 걸려 허둥대고 버둥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인간 삶의 모습이다.

시간과 인간은 연기적 관계에 있기에 시간은 인간이 만든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달걀이 연기적 조건에 따라 생명체의 수정란으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재료로, 또는 약의 원료로 되듯이.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은 시간의 노예선에 납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랴, 시간은 결코 노예선의 선장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시간의 노예가 된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는 광장을 제공해 줄 뿐이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산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삶의 제일 중요한 열쇠이다. 그 최고의 방법은 시간과 함께 춤을 추고 사는 것이리라. 그런데 시간과 함께 춤을 어떻게 추어야 하는가? 인간과 함께 하는 시간은 '체험된 시간'과 '시계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체험된 시간은 '마음의 시간'이고, 시계의 시간은 '몸의 시간'이다. 이 두 종류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 중도의 시간일 것이다. 비약해 보자. 시간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은 '깨달음'과 '자비'의 양 날개를 펄럭이는 율동이 아닌가.

시간에서 무상을 깨닫고, 무상에서 자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늙어가는 아내에게 큰 연민이 생기듯이. 새해가 다가온다. 이제 시간과 함께 멋진 춤을 춰보자. 그런데 어떻게, 어떤 춤을?

기자칼럼

불교 이모티콘 2종뿐인 이유



신성민
취재부 차장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이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모티콘은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출시된 지는 5년이 지났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이모티콘 스토어 오픈 5주년을 기념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성장 과정과 판매 트렌드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모티콘 시장이 성장하면서 누적 이모티콘 상품은 4천800여개로 5년 만에 800배가 증가했다. 매월 발신되는 이모티콘 메시지 수만 20억 건, 하루 1천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가 텍스트를 대신해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나눈다.

사실상 이모티콘은 새로운 콘텐츠 소비습관이자 문화이다.

그럼 종교계 이모티콘은 어떨까. 종교계 이모티콘 시장은 기독교(개신교+가톨릭)와 불교로 양분된다. '양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선점했다고 보는 게 맞다. 본 기자가 현재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는 이모티콘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 이모티콘 9종에 달한다.

검색도 용이하다. 기독교는 샬롬, 갓, 은혜, 사랑, 수녀 등을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예수를 캐릭터화 했지만, 글자 도안인 캘리그래피와 POP도 사용되고 있다. 사용의 범주가 넓은 편이다.

기독교 9종… 캐릭터도 다양해

내년부턴 종교이모티콘 입점 無

대중 눈높이 맞는 콘텐츠 내놨나

반면, 불교계는 딱 2종뿐이다. '어라 스님' 캐릭터로 웹툰을 그리는 지찬 스님이 가장 먼저 카카오톡에 입점했고, 뒤를 이어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반야의 야단법석'이라는 이모티콘을 내놨다. 두 이모티콘 모두 스님을 주제로 한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를 주제로 한 이모티콘은 입점이 안된다. 다음카카오에서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종교 관련 캐릭터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찬 스님의 경우 어라 스님 이모티콘 시즌2를 위해 관련 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입점이 성사되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입점한 종교 이모티콘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 기독교계 이모티콘 '러블리 마이 갓'이다. 복음의전함에서 만든 이 이모티콘의 수익금은 복음 광고를 위해 사용된다.

종교 이모티콘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의 방침은 회사의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문화 선교 시스템과 관련 회사들이 비교적 잘 구축된 개신교계는 이모티콘이라는 콘텐츠에 빠르게 대응했지만, 불교계는 순수 작가 등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이모티콘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 이모티콘 입점을 위해 지찬 스님 등 많은 작가들이 뛰어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어 더욱 그렇다.

여기서 불교계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포교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문화 포교'를 위해서는 빠른 트렌드 읽기와 이를 적용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웹툰이 대세인데, 불교계는 어라 스님과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활동하는 작가는 매우 적다.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 게임 · 음반 · 애니메이션 · 캐릭터상품 · 장난감 ·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젊은 세대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눈으로 봐야 한다. 수요자 욕구에 맞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불교계 관계자에게 흡족한 콘텐츠가 아닌 비불자 대중에 눈에 맞춘 콘텐츠를 고민하고 트렌드를 내놔야 한다. 포교는 입교와 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기존 신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社說

民心도 佛心도 '퇴진' 원한다

조계종이 '박근혜 즉각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각 종교계에서 산발적으로 시국선언이 나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단 차원의 대응이다. 조계종이 그 뒷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독대에서 이미 하야를 권유하는 등 국민을 대신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통과 외면 뿐이었단 것이다.

〈초발심자경문〉에는 '사언마어긍수청 성교현장고불문(邪言魔語肯受聽 聖教賢章故不聞)'라는 말이 나온다. 삿된 말을 즐겨 들으면 성현이 바르게 말한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순실과 같은 비선과 충언을 하지 않는 관료들에 둘러쌓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려와달라'는 말이 과연 들릴까.

민심을 바로보지 않는 자, 민중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국정안정을 말할 자격이 박 대통령에게는 없다.

조계종이 호소문에서 밝혔듯,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추운 날씨에 촛불집회로 나서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직위와 한줌 뿐인 권력에 집착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마장, 즉 장애에 부딪혔을 때 가장 쉬운 해답을 제시한다. 바로 '초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의 초심은 무엇일까. 스스로도 밝혔듯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함이다.

이제 국민의 뜻은 확고하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이다. 국민이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원한다.

사찰음식전문가 '토사구팽' 해서야

국내외 사찰음식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촉한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 전원에게 1년 만에 사임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이면에 얽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행정처리에 있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 문화사업단 내에서 불거진 논란이기에 파급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왜 사임을 요청했는가'다.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전달했어야 하지만 전문위원 스님들은 전혀 듣지 못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사임 요청 배경을 실무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윗선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재가전문위원은 제외한 채 출가전문위원 5인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에도 지적이 뒤따른다. 또 전문위원 스님이 전해들은 것처럼 현재 직원들도 사표를 낸 채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세간의 눈총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현 전문위원 스님들은 조계종단이 위촉하기 오래 전부터 사찰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해왔다. 그 원력과 실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종단서도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사찰음식문화가 대중적 반열에 오른 지금, 이 같은 논란은 사람들에게 '토사구팽'을 연상시키게 할 수도 있다. 그간의 공적이 있음에도 일언반구 없이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기관 · 단체의 신뢰도는 능력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한번 떨어진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다. 문화사업단은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이 붙지 않도록 이번 논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